

기고

윤신근

수의사·동물학박사 한국동물보호연구회장



동물보호법 개정, 회초리도 필요하지만...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시행에 들어갔다. 동물 유기와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중 반려동물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짚어보자.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은 과거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높아졌다.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스테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 등 맹견 소유자에 대해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기존 소유자는 12일까지 가입해야 했다. 신규 소유자는 소유하는 날 가입할 의무를 부여했다.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려견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가슴줄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시행은 1년 뒤)한다.

아파트 등 건물 내부 공용 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는 등 안전 조치가 필수다.

동물판매업자는 등록 대상 동물을 팔 때 구매자 명의로 등록(내외장 무선 식별 장치)해야 한다.

필자는 1990년대 '한국동물보호 연구회'를 설립했다.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동물

보호법'이 제정됐지만, 사실상 '대외용'이었을 뿐 '동물보호'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이후 동물보호 필요성을 역설하고, 다양한 캠페인을 펼쳤다.

그랬던 필자이기에 이번 개정이 남다르게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내 착잡해진다.

지난 30여 년간 국내에서 반려동물 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반려동물 문화는 담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음을 가능할 수 있어

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등에 대해 벌칙을 강화한 것은 그간 얼마나 많은 동물 학대 사건이 일어났는지, 정부가 이를 당장 제재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읽혀 안타깝다.

5대 맹견 소유자 보험 가입 의무화는 견종이 정말 다양해졌다는 데 반가워하다 그동안 맹견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일어났고, 맹견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 반려동물에게 얼마나 배려가 부족했었는지를 깨닫게 한다.

아파트 등 건물 내부 공용 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아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에서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나 반려동물과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했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했다'에 그러지 못했구나'는 아쉬움이 든다.

동물 구매 시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한 데서 '반려동물등록제'에 그동안 얼마나 허점이 많았는지, 그 제도가 반려동물 유기 문제 해결에 좀처럼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만든다.

결국 '몸'(반려동물 산업)은 이미 '성인'이 됐으나 '정신'(반려동물 문화)은 아직 '아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아기에게 "어서 성인이 돼야 해!"라고 재촉하고, 채근한다고 해서 바로 성인이 될 수 있을까? 그 건 불가능하다.

그러나 회초리를 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아기 정신'이 '성인 정신'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제대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성인 몸'에 꾸준히 영양을 공급하고, 그 몸을 지속해서 운동시켜야 한다.

간신히 성인 정신이 됐는데 몸이 기다리다 지쳐 '노인 몸'이 돼버리는 안타까운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감(共感)능력을 배양하자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이 성공과 행복의 척도가 되기 때문,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공감할 줄 알아야 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은 자신의 생각을 쉽게 공유하게 만들며 문제는 공감 없이 공유만 남발될 때이다.

공감 없는 공유는 소통의 벽을 만들고 갈등을 조장한다.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려 할 뿐 타인의 감정과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 데서 갈등이 생긴다.

갈등의 촉매제인 비난은 상대를 누르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심리가 깔려 있으며 갈등의 본질은 나를 드러내려는 양자 간의 충돌이다.

공감능력이 바로 이런 갈등과 분열을 없애주고 나아가 상대방이 회복되는 힘을 준다.

우리 사회가 두 동강이 날 정도로 갈등이 비등한 것도 특정지역 중심의 가치로 온 나라가 획일화됐기 때문이다.

전 국민이 지역보다는 특정지역을 바라보고 지향하는 세상이다. 지역성 상실시대다.

지역성이란 개인과 마을, 도시, 더 크게는 국가와 세계 전체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사람이 특정한 공간에 존재하면서 자연스럽게 쌓아온 공통의 자산이자 지속적으로 지켜가야 할 소중한 가치다.

지역성 상실은 다양성의 소멸이며,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가장 큰 피해이다.

인터넷과 네트워크의 발달, 모바일 미디어의 보편적 이용으로 세계가 좁아졌지만, 같은 장소와 풍토에서 함께 부대끼고 공감하며 사는 인간 존재의 본질까지 망각해선 안 된다.

공감능력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바탕으로 행동의 동기 예상되는 반응을 추적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유도한다.

이 능력은 사람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까지 예측해 준다.

공감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없애는 것에서 시작된다.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는 견해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없애려면 늘 께어서 스스로를 바라보아야

한다. 내가 없어진 자리에 다른 사람을 채우면 공감능력은 완성되는 것이다.

내가 생각했을 때 옳고 바른말이라고 생각했던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말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좋은 말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살려주며 격려하면 받는 사람의 기쁨이 크지만, 격려하는 사람에게도 기쁨은 두 배가 된다.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알리고 하기 전에 이미 짐작으로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을 하지 말며 상대방의 말을 듣고 공감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국종균/광주서부소방서현장지휘담당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 고장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부운천로 213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정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체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